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대회 및 철야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강준현)은 3월 14일 세종정부청사 안내실 앞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결의문’을 낭독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 다수가 참여했다.

김현옥 여성위원장, 김재형 청년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헌법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권리인가, 권력자의 욕망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 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라”라고 했다.

이어서 “왜! 헌법의 시계는 윤석열에게만 멈춰 있는가?”라며 “온 나라가 최악의 불경기로 신음하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희망의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고 국민의 시계는 생존을 위해 가혹하게 흐리는데, 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시간만 멈춰 서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결의문 말미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한다!”라는 호소와 함께 결의를 다지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앞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되는 날까지 세종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공백 없이 세종시의원과 당원이 함께하는 철야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

헌법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권리인가, 권력자의 욕망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선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 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한낱 권력자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다.

국민의 거센 요구 속에 불법 계엄이 자행된 지 11일 만인 2024년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분노한 국민이 직접,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짓밟힌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세운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적들은 여전히 음지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곳곳에 숨어있는 기득권 세력의 교묘한 책략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와 다름없다.

특히 석방 이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웃으며 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는 그가 헌법과 정의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독재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왜! 헌법의 시계는 윤석열에게만 멈춰 있는가?

온 나라가 최악의 불경기로 신음하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희망의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시계는 생존을 위해 가혹하게 흐리는데, 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시간만 멈춰 서 있는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윤석열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한다면, 국가는 건잡을 수 없는 혼란과 비상사태 속에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권력자의 야욕과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호소한다.

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윤석열의 재구속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하나, 헌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법과 정의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윤석열의 파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책무이다.

하나,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국민의 바램과 함께,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